

■ 2018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시·시조 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18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2차 심의
(시·시조 분야)
- 회의일시 : 2018. 4. 18(수) 14:00 ~ 18:00
- 회의장소 :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

이번 2018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시와 시조 부문에는 실로 많은 시인들의 활달한 응모가 있었다. 예심을 통해 올라온 작품들은 한결같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최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인들의 역량을 한눈에 알아보게끔 해주었다. 모두 우리 시의 새로운 성과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짐작되었다. 제출된 미발표 신작 원고를 균질적으로 읽어가면서 심사위원들은 새롭고 독창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시편들에 호의를 가지고 심사에 임했다. 경험적 구체성이 더해진 작품들은 더욱 후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이번 지원이 이분들의 창작 활동 기반 강화 및 시적 성과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활발한 토론을 통해 지원자를 하나 하나 뽑아갔다. 또한 향후 2년간의 창작 활동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짜여져 있는가를 부가적으로 검토하면서, 그 우수성과 참신성을 핵심 지표로 삼으면서 심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결과, 이미지를 남발하거나 산문시로 시종했거나 난해성의 과잉으로 나아간 작품들보다는, 비교적 긴장을 팽팽하게 갖추면서도 새로운 형식이나 내용을 담아낸 작품들을 대부분 선정하게 되었다. 특별히 시조 부문에서는 더욱 완미한 완결성을 중시하면서 심사를 진행하였다. 모두 우수한 수준을 보여준 작품들인 터라, 심사위원들로서는 섬세한 비교우위의 기준들을 제시하면서 선정 작품들을 좁혀나갔다. 모든 심사가 다 그렇겠지만,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작품들 또한 그 우수성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었음을 밝힌다. 더불어 이번 선정이 공정하고 오랜 시간을 들여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리며, 모든 선정된 시인들께 축하를 드린다.

시·시조 분야 심사위원 일동

■ 2018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소설 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18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2차 심의
(소설 분야)
- 회의일시 : 2018. 4. 18(수) 14:00 ~ 18:00
- 회의장소 :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

소설부문은 1차 심의에서 신청작에 대한 문학적 성취를 살펴서 총 34편의 작품을 선하였다. 단편 부문과 장편 부문에서 작품 수가 엇비슷하게 남은 가운데 2차 심의에서는 심사기준을 보다 세분화했다. 신청작의 수준과 함께 작가의 창작 역량과 집필 계획의 참신성·충실성을 검토하였다. 심의위원들은 개별작들에 대한 숙의 과정을 거친 후 각자 세 항목의 평가를 계량화하였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미발표 신작을 심의 대상으로 삼은 만큼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종단계까지 지원 작가의 신상은 가리고 심의가 진행되었다.

미발표 신작에 한하여 지원 신청이 가능해서 작가들의 노고가 짐작되었다. 그럼에도 장편소설들이 많았던 점에 놀랐다. 짧은 시간 동안 준비한 과정에서 작품들의 문장이나 구성이 거칠게 남아 있고는 했다. 단편소설의 경우 낮은 상상력과 실험성을 보여주기보다 종래의 문법에 안주하여 현실을 즉물적으로 읊기는 작품들이 많았다. 일테면 젊은 인물들을 다룰 때는 천편일률적으로 청년 실업과 빈곤을 기본 조건으로 내세웠고 그 시선은 상상력이 개입할 틈 없이 눌러 있었다. 장편소설은 역사소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새로운 소재의 발굴과 재해석에 대한 높은 기대치가 따르게 마련인데 그에 값하는 작품은 드물고 사극 대본을 읽는 느낌이 들었다. 고양이, 주식, 자살, 가난 등 주로 쓰이는 소재들 역시 습관처럼 활용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아쉬웠다. 심의위원들은 공공의 영역에서 시행되는 지원제도인 만큼 새로운 실험정신으로 한국문학을 낮은 영역으로 견인하는 가능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거듭 공감했다. 작가들의 대가 없는 불면의 밤들과 외로운 시간들 앞에 경의를 표한다.

소설 분야 심사위원 일동

■ 2018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아동·청소년(동시·동화) 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18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2차 심의
(동시·동화 분야)
- 회의일시 : 2018. 4. 19(목) 14:00 ~ 18:00
- 회의장소 :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

—총평

2018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아동·청소년분야 지원신청건수는 동시 136건, 단편동화 46건, 장편동화 157건으로 총 339건이었다. 그 중 1차 심의 기준을 거쳐 동시 16건, 단편동화 4건, 장편동화 18건 등 모두 38건이 2차 심의 대상에 올랐다. 2차 심의는 그 기준이 미발표 원고의 문학적 수준뿐 아니라 신청 작가의 문학적 역량 및 발전가능성, 그리고 기대되는 성과까지 고려되어 매우 민감한 작업이었다. 특히 동시 부문은 신작 7편으로 이와 같은 심의 기준에 합당한 작품을 가려내는 일이어서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동화 부문에서는 장편동화의 경우, 제출 분량 100매 한정 규정에 따라 발단·전개 부분만으로 그 작품의 전체를 유추해 문학적 성숙성 및 작가의 역량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 그만큼 고심이 컸다. 장편동화는 절정·결말 부문에서 작품의 완성도나 문학적 성취도가 드러나기 마련에서이다. 거기에다 초등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청소년이라는 대상 독자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까닭에 엄격하면서도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었다. 결국 2차 심의 기준에 의한 공정한 잣대와 충분한 합의 과정을 거쳐 최종 동시 8건, 동화 11건을 선정하였다.

—동시 부분

2차 심의에서 논의된 동시는 대부분 안정되고 익숙한 소재와 어법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새롭지는 않으나 공들여 구축한 작품세계는 저마다 허투루 보아 넘길 수 없는 완성도를 담고 있었다. 동시의 프리즘으로 사물의 심상을 절묘하게 포착하여 의미화한 신선한 작품도 눈에 띄었다. 그러나 대체로 새로운 방향과 모색을 담은 실험적인 작품들이 적었다는 점은 아쉬웠다. 그 외에도 제출한 신작 7편의 작품 수준이 고르지 못한 경우뿐 아니라 상투적이고 작위적인 작품도 의외로 많았다. 동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탐구와 위반 충동이 좀 더 발견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특히 사람과 자연에 대한 따스한 눈으로 바라본 작품이 많았는데, 그것은 아주 중요한 시적 미덕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감동을 줄 수 없는 일이다. 보다 더 시적 형상화를 위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동화 부문

2차 심의에서 논의된 동화는 문학적 성숙도를 높일 뿐 아니라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이야

기성을 담은 작품이 많았다. 그것은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릴 만성화된 과제들을 새롭게 되살려내기도 하고, 너무 많이 다루어져 자칫 진부할 수 있는 주제들을 흥미롭게 이야기화하면서 그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아이들의 고민과 고통을 성찰해내기도 했다. 그만큼 작품마다 뚜렷한 주제의식이 담겨 있으며, 현실의 문제성을 예리하게 짚어보는 작가의 날카로운 시선도 잠복해 있었다. 작품 수준도 대체로 고른 편이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전통적인 동화 문법에 충실한 동화 양식보다 소설 양식이 많았고, 탄탄한 구성력과 풍부한 상상력을 담은 아동소설에 비해 우리 사회의 문제성이나 역사를 소재로 한 청소년소설이 많았다. 곧 작가의 상상력과 사물에 대한 의미와 신선한 재미를 갖춘 저학년 동화나 순수 동화가 의외로 적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쏠림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게다가 아이들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의미 있게 제기한 작품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점도 아쉬웠다. 역사를 소재로 한 청소년소설이 많은 것은 좋은 점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럽다. 좀 더 현실문제에 치열하게 다가갔으면 좋았을 것이다. 또한 소재의 지평도 더 넓어졌으면 좋겠고, 지문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도 요구되었다. 그 외에도 문장과 띄어쓰기, 맞춤법 오류, 오타자 등이 의외로 많이 눈에 띄었다. 충분한 퇴고를 거치지 않은 문장, 정제되지 않은 난삽한 표현이 거슬렸다. 시대정신을 예각적으로 담아낸 작품이 많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꽤 아쉬웠다. 한국 동화문학의 발전을 위해서 보다 더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현실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제기한 특성 있는 작품, 전통적인 동화 문법에 충실한 순수 동화, 반듯한 문학적 성취도와 신선한 재미를 갖춘 저학년 동화 등 문학적 다양성이 요구되었다.

아동·청소년(동시·동화) 분야 심사위원 일동

■ 2018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수필·평론·희곡 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18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2차 심의
(수필·평론·희곡 분야)
- 회의일시 : 2018. 4. 19(목) 14:00 ~ 18:00
- 회의장소 :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

아르코문학창작기금은 기존 작가들의 창작 의욕을 북돋울 수 있도록 작품에 기금을 지원함으로써 문학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사업이다. 문학계에서는 일정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리를 잡아왔던 이 사업은 지난 몇 년간 중단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시행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래서인지 2018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의 전체 지원 상황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충분히 준비되지 못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국가예산을 투입한 지원금을 줄 필요가 있는지 회의적인 수준의 작품도 많았다. 다시 공모가 지속되면서 나아지리라는 희망을 품어 본다.

수필·평론·희곡 분야의 전반적 작품 수준은 높지 않았다. 수필 177편, 평론 22편, 단막희곡 32편, 장막희곡 15편이 지원했으며, 1차 심의를 거쳐 2차 심사에 각각 수필 20편, 평론 2편, 단막희곡 4편, 장막희곡 2편이 올라왔다. 2차 최종심의를 장식주 시인, 함돈균 문학평론가, 장은수 한국외대 교수 세 명의 심사위원이 맡았다.

2차 최종심의를 최종심의에 올라온 수필·평론·희곡 작품 모두를 3명이 읽고서, 복수추천한 작품들을 1순위에 놓고 추가로 추천한 작품들을 대상으로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수필 장르의 경우 응모작 전체로 볼 때는 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했는데, 예전에 국어교과서에서 보았던 식의 ‘전형성’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신선한 관점 전환이 있는 작품이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문장력에 있어서도 아마추어와 프로를 구별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수필을 쓰는 작가들은 상투적인 일상일수록 발견의 시선이 필요하며, 공들인 문장이 아니면 글맛도 예술성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범한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평론의 경우는 장르 특성상 훈련된 작가들이 응모한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기본 이상의 수준은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응모작 상당수가 ‘문학사’ ‘연구 논문’ 같았다. 현장 비평과 연구 논문이 구분되지 못하는 현상은 평론 부문 공모에서 요즘 자주 눈에 띄고 있는데, 평론가가 연구자를 겸하는 일이 대부분인 한국사회의 학제-문단 연계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그 결과 평론가 자신의 해석의 과감한 창조성을 시도하는 사례는 점점 적어지고, 참고자료를 열거하는 논증형 글쓰기가 많아진다. 평론도 ‘창작’이라는 ‘작가의식’이 열어질수록 평론의 위기는 심화될 것이다.

희곡의 경우 국내의 척박한 공연환경을 반영하고 있는 듯 지원작도 많지 않을뿐더러 좋은 작품을 찾기도 쉽지 않았다. 특히 단막극의 경우 실험성이 중요하지만 왜인지 과감한 실험성이 돋보이는 작품은 거의 없었다. 현상적으로 주목할 점은 사회적 이슈를 담은 작품들이 많지만 이를 극화하는 방식이나 시선은 지극히 평범해서 ‘문학적’ 가공이 지닌 독특한 맛을 찾기가 힘들었다는 사실이다. 이야기의 홍수, 대중문화독점 시대에 ‘문학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작가에게 빠져있다면 연극의 활로는 점점 더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심의위원들은 상대적으로 엇보이는 실험성, 소재 탐구의 참신성을 눈여겨보고 작가의 발전가능성에 점수를 주기로 했다. 그렇지만 이들 작가 역시 좀 더 과감한 창조성을 발휘해주시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선정된 작가뿐만 아니라 응모에 참여해 주신 다른 작가분들에게도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

수필 · 평론 · 희곡 분야 심사위원 일동